

2025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디지털 세상으로 떠난 특별한 여행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우수후기 자료집



2025

**디지털 세상으로 떠난
특별한 여행**

2025년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우수후기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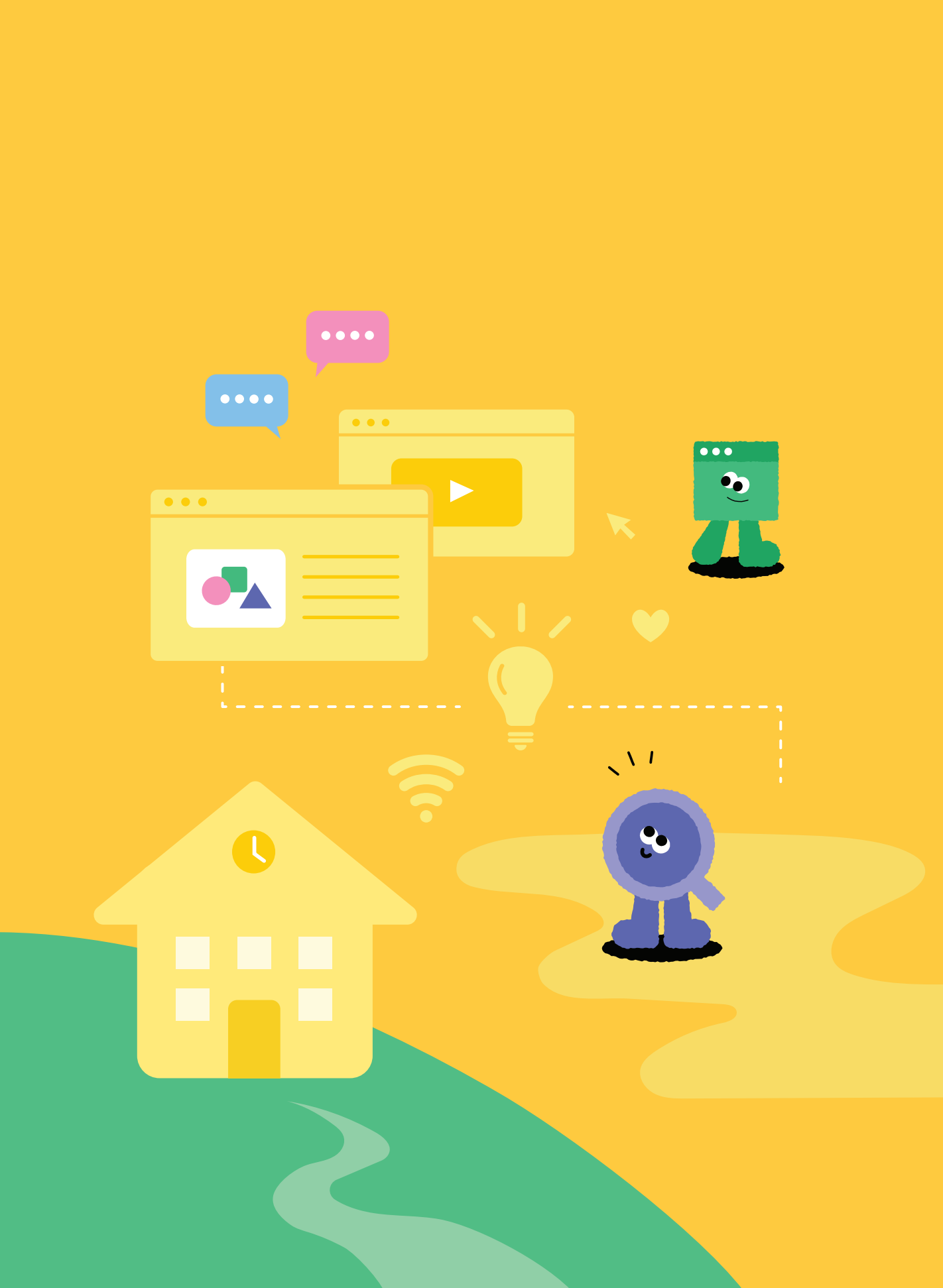


목차

1	2025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07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소개	08
	숫자로 보는 2025년	10
	후기가 말해주는 변화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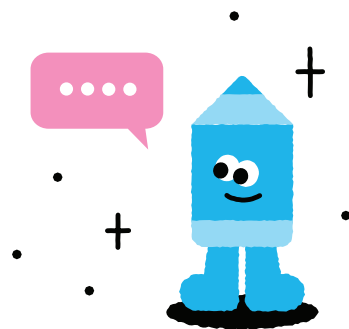
2	교사가 바라본 사디세	13
	[특별 사례] 교육 소외지역에 피어난 배움의 즐거움	49

3	학생이 전하는 변화의 순간	55
----------	-----------------------------	----



1

2025년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청소년 디지털 시민 교육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은,

청소년 디지털 시민 교육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은 디지털 공간 속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2015년부터 카카오, 카카오톡, 그리고 BTF푸른나무재단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감정과 공감, 디지털 에티켓, 사이버폭력, 디지털 리터러시, 온라인 정체성,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등 디지털 시민성 7대 주제를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 속 문제들을 예방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육은,



학년별 맞춤형·놀이형 교육 프로그램

학년 수준에 맞춰 단계별로 구성된 교구와 놀이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도를 높입니다.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방식 습득

다양한 감정과 가치들을 디지털 시민의식과 함께 배우며 자연스럽게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친구들과 협동하는 즐거움

경쟁이 아닌 디지털 세상으로 떠나는 미션여행을 통해 스스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들과 협동하는 즐거움을 느끼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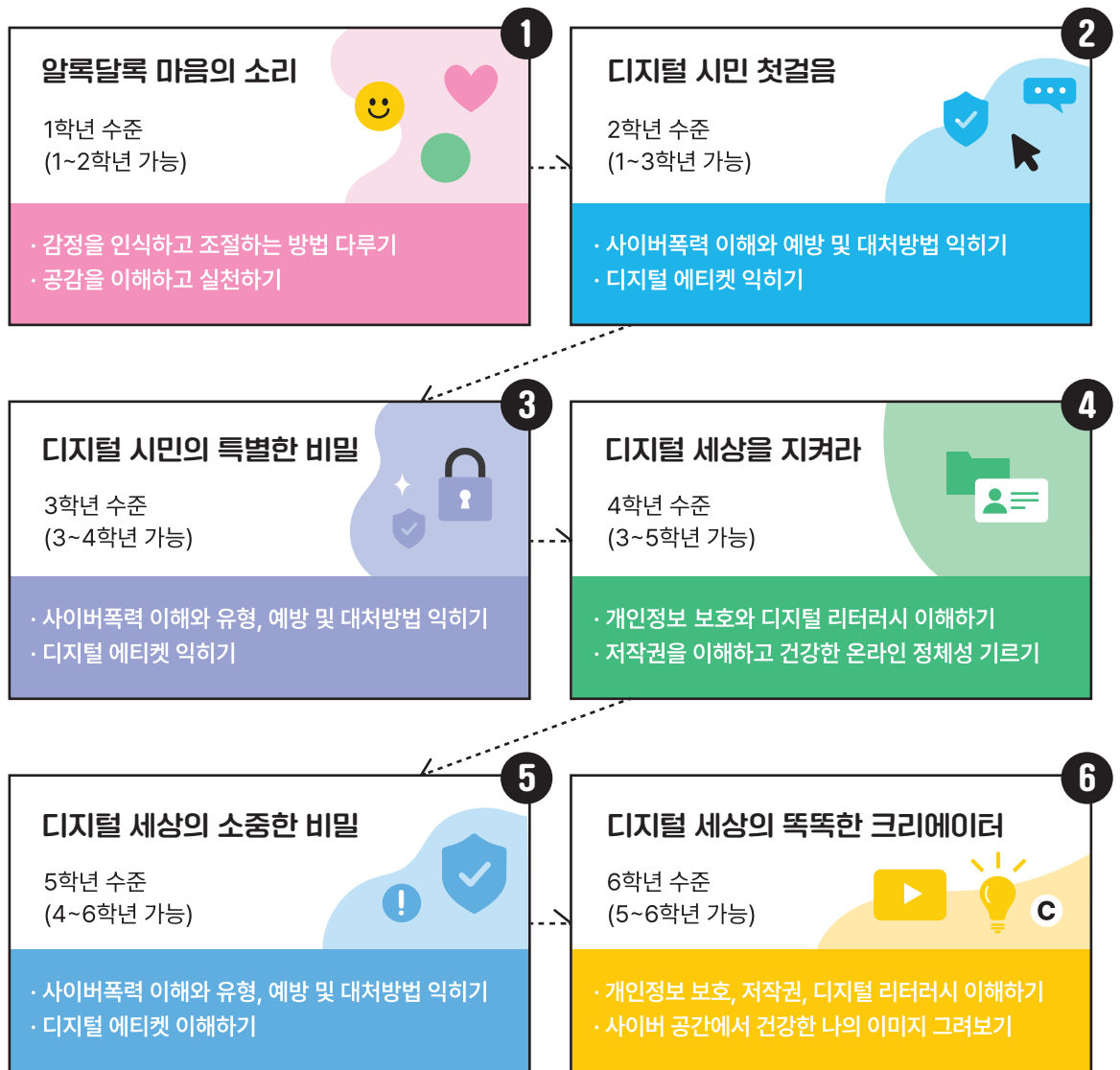
학교 현장별 맞춤 교육 진행

대면·비대면(양방향) 교육 방식과 모둠·개별활동 학생 참여 방식 등 다양한 학교 현장에 맞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육 커리큘럼

청소년 디지털 시민 교육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은 디지털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 디지털 시민성 7대 주제를 학습하는 놀이형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학년별 디지털 사용 정도 및 학습 인지능력을 반영한 프로그램 주제 및 목표로 구성되어 있고, 도덕 판단력을 자극하고 사고의 확장을 촉진시키는 미션 활동을 통해 디지털 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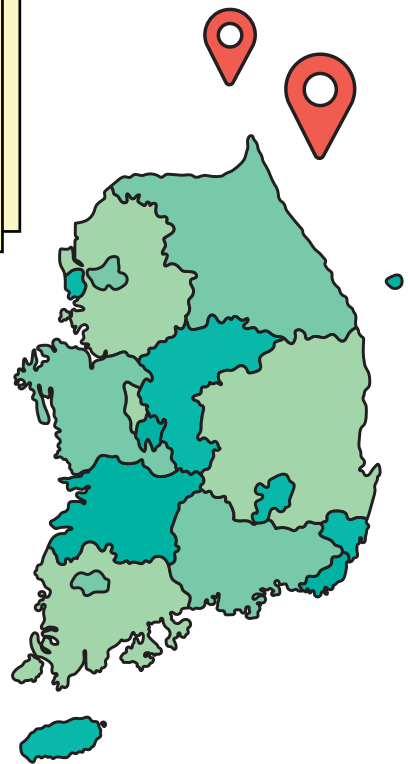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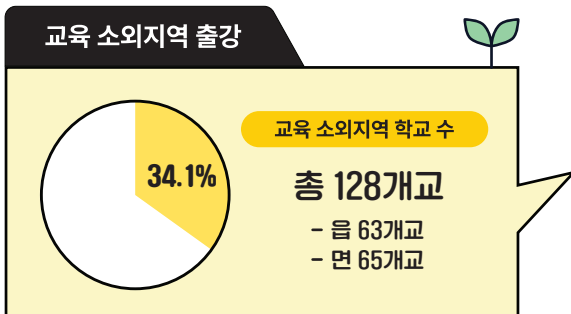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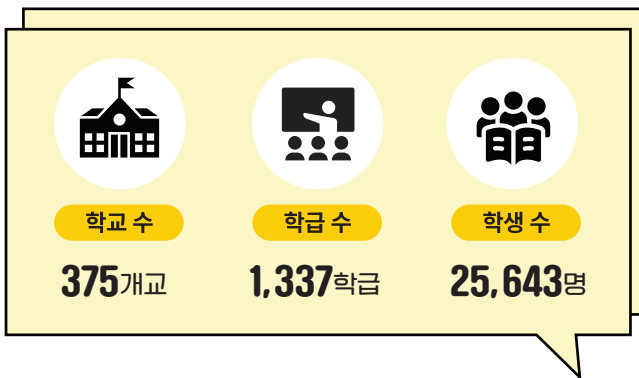


※ 본 자료집은 2025년 운영된 찾아가는 학교교육 참여자 후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사디세는 2026년부터 AI Native 세대에 필요한 디지털·AI 시민성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2025년

사디세와 함께한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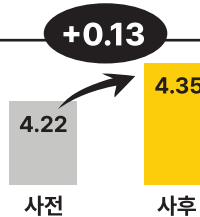
사디세 홈페이지 바로가기

더 자세한 내용은 사디세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025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육 이수 초등학생 중 6,373명 대상 교육 전후 효과성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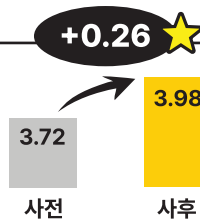
디지털 에티켓

디지털 공간에서 예의와 배려를 실천하고,
책임감 있게 소통하려는 태도가 강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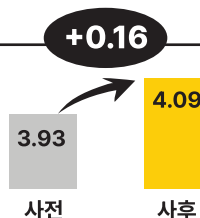
디지털 리터러시

온라인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이 가장 크게 향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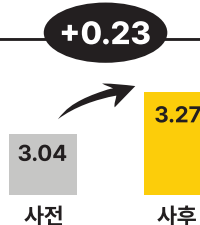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관리·보호하려는 실천 의식이 강화되었다.



온라인 정체성

온라인에서 자신의 행동과 표현이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디지털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태도가 향상되었다.



후기가 말해주는 변화

재미있어서 시작한 배움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천하는 힘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후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변화는 단순한 '수업 만족'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행과 미션을 통해 수업에 몰입하고, 디지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일상에서의 행동을 바꾸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1 재미·몰입 배움의 문을 열다 여권, 미션, 보드게임과 같은 놀이형 활동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수업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진짜 여행 가는 기분이예요!” 미션 재미 여행 교구 참여 협력	2 이해·판단 정답을 듣기보다 스스로 생각하다 실제 디지털 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고 이유를 설명하며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 갔습니다. “디지털 생활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이 많았다.” 선택 질문 생각 토론 문제 해결 논쟁력	3 공감·성찰 화면 너머의 사람을 바라보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돌아보고, 피해자의 마음과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하는 경험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게 누군가의 상처가 되진 않을까.” 존중 배려 공감 책임 상처 되돌아보기	4 행동·실천 배운 것을 일상의 약속으로 바꾸다 교육에서 알게 된 내용을 지식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댓글·개인정보·저작권·사이버폭력 상황에서 실천하겠다는 구체적인 다짐으로 연결했습니다. “앞으로는 친구 그림도 허락받고 쓸래요.” 신중함 약속 실천 도움 예방 디지털 시민
---	--	---	---



후기를 통해 확인한 사디세 교육의 힘

놀이와 세계관은 배움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선택과 토론은 학생 스스로 판단하게 하며, 공감과 성찰은 배운 내용을 일상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사디세가 만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디지털 지식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세상에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스스로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는 힘입니다.



2

교사가 바라본 사디세



디지털 세상에선 우리가 에티켓 히어로

경남 금오초등학교 5학년 1반 김민준 선생님

우리 반 학생들과 함께 '디지털 세상의 소중한 비밀'이라는 주제로 의미 있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번 교육은 사이버폭력의 위험성과 디지털 에티켓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교육으로 디지털 세상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바르게 소통하는 디지털 시민 의식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심코 적은 글이 칼이 되지 않도록

첫 번째 주제는 '사이버폭력'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사이버폭력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특히, 익명성, 확산성 등 사이버폭력의 특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면,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학생들이 공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에티켓 히어로

이어진 디지털 에티켓 교육에서는 온라인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과 올바른 인터넷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현실과 같은 예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채팅 예절, 댓글 작성 시 주의할 점, 저작권에 대한 기초 인식 등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기쁘게도, 슬프게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떠올리며 서로를 배려하는 온라인 습관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학생 참여 중심의 즐거운 교육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올바른 디지털 행동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며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번 교육은 단순히 디지털 에티켓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 **학생들이 실제로 느끼고 생각하며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수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사디세의 디지털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이가 좋아진 디지털 세상

경기 인계초등학교 4학년 5반 김가현 선생님



카카 오이슬랜드를 지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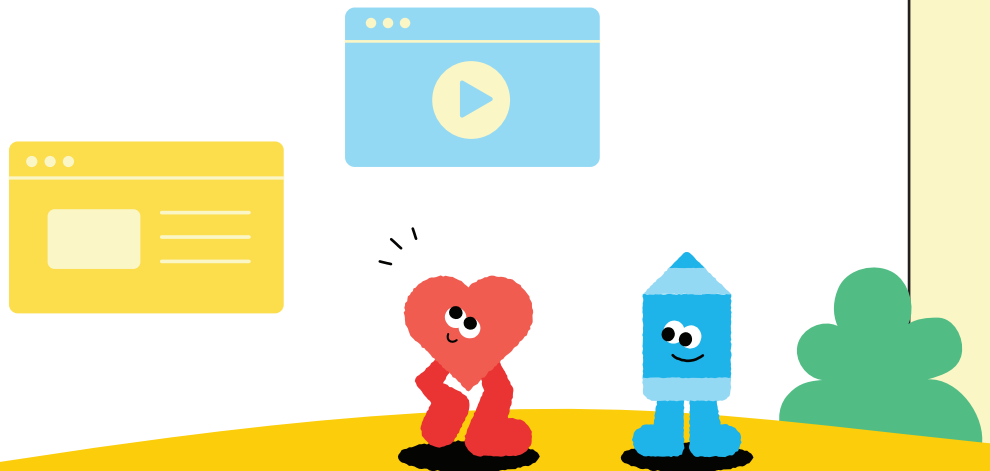
아이들은 강사님이 제시한 온라인 위험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어떤 정보가 위험한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보드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세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태도와 실천 방법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르웨이를 지켜라!

아이들은 자신이 온라인에서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건강한 온라인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보았고, 동시에 저작권의 개념과 책임에 대해서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사님의 생생한 사례 설명과 흥미로운 미션 활동 덕분에, 저작권이 우리 생활 속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체감하며 “앞으로는 친구 그림도 허락받고 쓸래요.”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두 차시 모두 아이들이 몰입도 높게 참여하며 즐겁게 수업에 임했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다음에도 또 하고 싶어요!” “너무 너무 재미있는 수업이에요!”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올바른 태도와 책임감을 놀이와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강사님들의 정확한 발음과 전달력이 인상깊었습니다. 아이들을 이끌어나가는 태도도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주목하게 되는 정말 흥미로운 수업이었습니다^^

“ 앞으로도 이러한 디지털 시민 교육이 계속 이어져,
학생들이 더욱 주체적이고 바르게 디지털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디지털 세상의 특별한 비밀' 알아보기

경기 필봉초등학교 3학년 5반 이방글 선생님



사이버폭력과 디지털 에티켓에 대하여 '와이프이트국', '인터넷키스탄'이라는 가상 소재를 통해, 학생들이 체험 활동 위주로 학습하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여행>이라는 소재를 사실적으로 받아들이 수 있도록, 여권의 워크북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와이프이트국의 나이트제일 이야기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이해한 뒤, '왕눈이'와 '팩트작렬'의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글로 써보며 생각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새롭게 제시된 질문을 통해, 자신의 이전 생각을 다시 평가해보는 과정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인터네키스탄의 살록달록홈즈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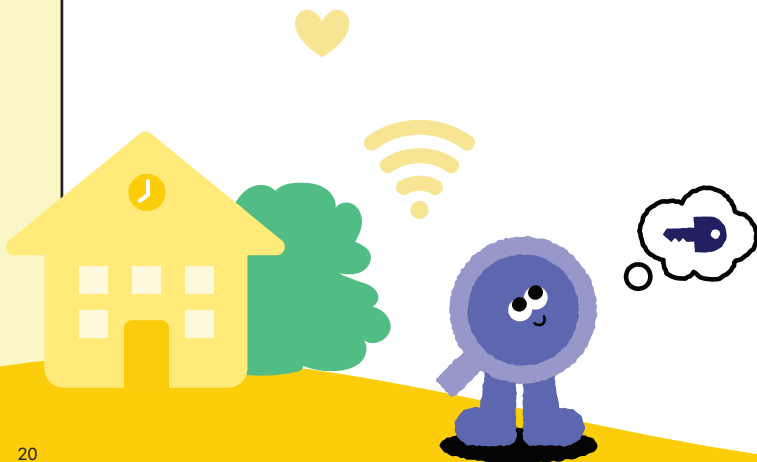
가정, 학교, 일상생활의 사례를 통해 '디지털 에티켓'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배운 뒤, 키보드리아 초등학교 범인 찾기 활동을 통해 판단력을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모둠별로 함께 지킴이 못한 디지털 에티켓을 찾고 해결방법을 이야기하는 모둠 활동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2시간 동안 몰입하며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제공되는 교구재 뿐만 아니라 강사님의 수업 자료 및 영상 자료가 질이 높았으며, 활동을 마치고 난 뒤에는 기념품과 디지털 시민 인증서도 받아서 학생들이 학습의 내용을 다시 되새겨보는 기회도 제공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첫걸음

대구 동성초등학교 4학년 6반 송효재 선생님





푸른나무재단에서 진행한 디지털 교육을 통해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참여형 활동 중심의 교육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였습니다.

문제를 풀고 답을 맞히며 서로 도우며 협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올바른 정보 활용 방법, 저작권의 개념과 책임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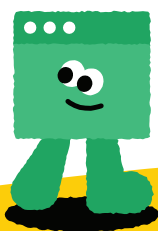


발표 시간에 '사디세!(사이좋은 디지털 세상)'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발표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수업 내내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발표를 통해 배운 내용을 자기 언어로 풀어내는 모습에서 성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업 마지막에는 '디지털 시민 인증서'를 받으며 모든 학생이 자신이 디지털 세상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마음 속으로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의 예의, 배려, 책임감을 자연스럽게 익히며, 앞으로도 더욱 건강한 디지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이었습니다. 유익하면서도 즐거운 수업을 진행해주신 푸른나무재단에 감사드립니다.



멋진 디지털 시민이 될 거예요!

마산신월초등학교 3학년 2반 홍일영 선생님

※ 본 후기는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육에 참여한 학생이 작성한 소감문을 담당 교사가 전달받아 게시한 후기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반 친구들과 함께한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육은 정말 최고였어요!

저는 솔직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잘 쓰는 것만 알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서 멋진 디지털 시민이 되려면 지켜야 할 약속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교육이 딱딱한 수업이 아니라, 여권을 가지고 디지털 나라를 여행하는 미션처럼 진행되어서 진짜 신났어요!

'비밀의 상자'를 열기 위해 두 나라에서 미션을 수행하고 인증 도장을 모으는 게 마치 게임 같았거든요.

특히, 친구들과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이버폭력 문제를 이야기 나누고, 어떤 행동이 '디지털 에티켓'을 어기는 것인지 알아보는 활동이 기억에 남아요. '왕눈이'와 '팩트작렬'의 이야기를 읽고, 나라면 어떻게 할지 직접 입장을 골라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진지하게 토론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앞으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을 쓰기로 다짐했어요!





새롭게 배운 점

사이버폭력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들도 친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괴롭괴롭 바이러스'라는 것을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지 마!'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변 어른들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과 올바른 저작권 개념에 대해서도 배우면서, 인터넷 세상을 더 안전하고 멋지게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마무리하며

선생님 덕분에 저희 반 친구들 모두 디지털 세상에서 착한 마음과 지혜를 가진 멋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디지털 시민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교육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상을 구하는 멋진 여행자,
3학년 2반 친구들 최고!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한 첫 여행

경기 동곡초등학교 2학년 2반 하경진 선생님



사디세 수업을 신청하고 싶어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매번 선정되지 못해 아쉬움을 삼키던 중 올해 2학기에 드디어 기회가 닿아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업 1주일 전 학습자료가 담긴 노란색 박스가 교실로 배송되어 왔습니다. 박스 안에 담긴 개별 여권과 활동지, 보물 상자 등을 보고 수업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수업 시작 30분 전에 미리 와서 학습자료 확인 후 대기하시는 강사님들을 보며 준비성이 훌륭하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디지털 시민 첫걸음 수업은 2시간 동안 짜임새 있는 구성과 알찬 이야기들로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주입식 설명이 아닌,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깨우쳐 나간다는 점에서 더 와닿는 수업이었습니다. 또한 개별 활동과 모둠별 협력 활동이 적절히 배치되어 지루하지 않게 2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결과물에 만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디지털 여행을 마치고 여권에 도장을 받으며 뿌듯해하고, 보물 상자에서 나온 선물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히 그려집니다. 2학년 아이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준 멋진 수업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학년 수업으로도 만나 뵙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신나는 디지털 세상 여행, 멋진 디지털 시민이 될 거예요!

경기 남양주다산초등학교 4학년 4반 박주희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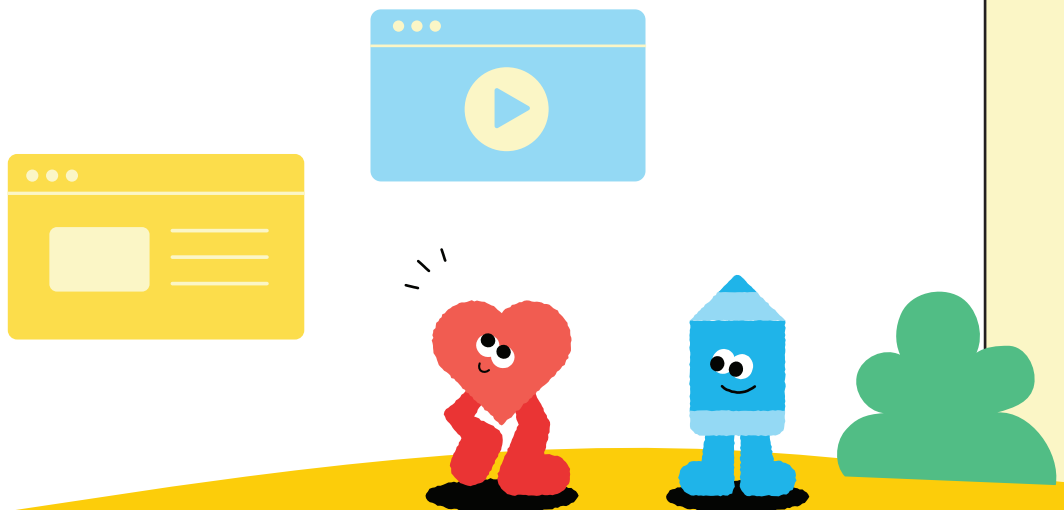
정말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푸른나무재단에서 지원해 주신 청소년 디지털 시민 교육 덕분에 우리 반 아이들이 디지털 세상에 한 걸음 더 현명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사이버 범죄의 다양한 종류를 알아보고 분류하는 활동을 통해 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분별력 있는 온라인 정보 관리 방법과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배웠습니다. 특히, 건강한 온라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은 학생들이 앞으로 디지털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디지털 세상 여행’이라는 흥미로운 소재로 시작하여 아이들의 관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끌어당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사님께서 친절하고 다정하게 아이들을 대해 주셨고, 스토리를 몰입감 있게 이끌어 주셔서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여권을 비롯한 다양하고 질 높은 학습 자료들은 아이들이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왔습니다.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학급 공동의 미션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올바른 디지털 시민의식을 기르는 것은 물론 협동의 가치까지 깨닫는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반 아이들이 이처럼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기가 워낙 좋아서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꼭 다시 교육을 신청하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한 행복한 한 걸음

경기 남양주다산초등학교 4학년 9반 박주희 선생님



멋진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해 행복한 한 걸음을 할 수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행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구분하는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혜롭게 사이버상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우며 개인정보를 위협하는 마피아를 선량한 시민으로 변화시켜 카카 오이슬랜드를 지키려는 보드게임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두 번째 여행 올바른 저작권 교육은 바른 자아 정체성에서부터 시작됨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저작물까지 지켜나가는 디지털 시민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또한 **문제상황에 맞는 자신의 생각과 그 이유를 이야기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와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오셔서 친구들을 위해 수업 준비를 하시고, 수업 시간에는 친절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수업을 열심히 해주신 강사 선생님, 이러한 훌륭한 수업을 학생들이 들을 수 있게 해주신 푸른나무재단에게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4학년 9반 학생들이 멋진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한 행복한 한걸음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행복하고 올바른 시민이 되기 위한 첫 걸음

경기 양도초등학교 5학년 2반 전영훈 선생님



이번 교육의 주제는 1차시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었고, 2차시는 사이좋은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에티켓에 대해 알아보고 다짐하는 활동이었습니다.

1차시에는 사이버폭력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사이버 따돌림, 언어 폭력, 카톡 감옥 등에 대해 자세한 안내가 있었는데요. 강사님께서 실제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을 해주셔서 아이들이 몰입하며 들을 수 있었습니다.



2차시에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들어가서 단톡방에서 있을 수 있는 예시 상황을 알려주시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아이들이 선택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말해보는 짧은 토론 형식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참 좋았는데, 아이들이 도덕적 선택의 과정에서 최대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셔서 좋았고, 생각보다 우리반 친구들이 생각이 깊고 도덕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아서 아이들이 새삼 사랑스러워 보인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커다란 모둠 활동지에 손바닥 그림을 그리며 사이버 에티켓을 지키도록 다짐하는 다짐문을 써보았습니다. 짧은 2차시 분량 수업인데도 사이버 여권, 학습지 등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미리 보내주셔서 감사했고, 키텍과 간식을 받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덩달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5학년 도덕 단원에 '사이버폭력' 단원이 있어서 교과연계도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배움의 기회가 또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사디세 수업에 퐁덩 빠졌어요

경기 정발초등학교 2학년 2반 강애경 선생님



사디세 수업에 기대하다

수업 1주일 전 학습 자료가 담긴 노란색 박스가 교실로 배송되었습니다. 박스 안에 담긴 플랜카드, 개별 여권, 활동 자료, 비밀의 상자 등을 보고 형식적인 수업이 아니라 진심이 담기고,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깊이있는 수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수업 시작 30분 전에 미리 오셔서 자료를 확인하고 아이들의 디지털 소양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하시는 강사님들을 보며 강사님의 전문성과 수업에 대한 기대와 효과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디세 수업을 환상적인 시간으로 만들다

수업은 2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고 학생 하나하나에 맞춘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도로 아이들의 집중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과 이야기로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는 높아져 활동 자료의 완성도가 우수했습니다.

전체 주입식 교육이 아닌,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개인 활동, 모둠 활동, 전체 활동이 균형있게 이루어져 수업의 진행과 흐름이 자연스럽게 학생의 참여와 집중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내내 진지했고 참여 태도가 매우 우수했으며 활동자료와 수업 결과물에 만족했습니다.

사디세 수업으로 자신감이 높아지다

‘디지털 시민 첫걸음’ 속의 디지털 여행을 마치고 여권에 도장을 받으며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또한 비밀의 상자에서 나온 선물을 보며 행복해 하는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노력하여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께 자랑하겠다고 가방 속에 넣는 모습이 들쭉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 디지털 시민의식의 필요성, 미래사회를 대비해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을 느끼게 하는 멋진 수업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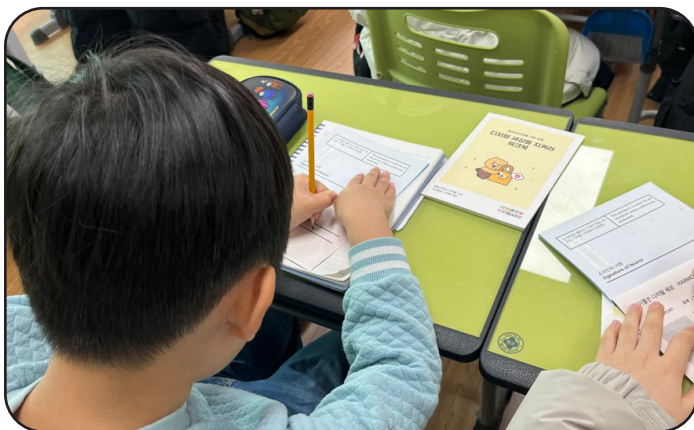
사디세 수업을 기다리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에서 멋진 프로그램으로 학교로, 학생에게, 교사에게, 학부모에게 다가올 다음 기회를 기다려 봅니다. 누군가는 이 멋진 수업으로 행복한 시간을 만들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을 구한 디지털 히어로들!

경기 매교초등학교 4학년 3반 최선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디지털 세상으로
신나는 모험을 떠난 매교초등학교
4학년 우리 반의 뜨거웠던 현장을
소개합니다.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카카 오이슬랜드>와
<좋아요르웨이>를 오가며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이 아이들에게는
마치 게임 속에 들어온 듯한
몰입감을 주었습니다.

설렘 폭발!
“여권 들고
디지털 세상으로
출국합니다!”



수업의 시작은 카카오 캐릭터가 그려진 ‘디지털 여권’과 ‘워크북’이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위한 여권을 받고, 뒷면에 귀엽게 인사하고 있는 춘식이를 보며 교실 분위기가 단번에 환해졌습니다.

자기 이름을 여권에 꼭꼭 눌러 쓰며 “진짜 여행 가는 기분이에요!”라고 설레하는 모습, 공부가 아니라 즐거운 놀이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



게임으로 지켰다! <카카 오이슬랜드를 지켜라>

아이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리터러시를 배웠는데요. 말로만 “조심해라”라고 하면 어려웠을텐데, <카카 오이슬랜드를 지켜라> 보드게임을 통해 직접 해커를 막아내고 정보를 지키는 미션을 수행하니 몰입도가 최고였습니다. “비밀번호는 나만 알아야 해!”, “이 정보는 함부로 믿으면 안 돼!” 서로 토론하며 게임을 즐기는 사이, 아이들은 어느새 스스로 정보를 판별하고 지킬 줄 아는 똑똑한 디지털 여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건강한 마음을 배웠다! <좋아요르웨이를 지켜라>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저작권)과, 온라인상에서 ‘나’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내가 남긴 댓글과 게시물에 나의 얼굴 (정체성)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는 친구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만 남길래요”라고 다짐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기특했습니다.



마무리

카카 오이슬랜드와 좋아요르웨이를 지켜내며 훌쩍 성장한 매교초 4학년 친구들! 아이들에게 ‘디지털 시민’이라는 멋진 타이틀과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소중한 비밀을 간직한 채 떠나는 디지털 여행

경북 영주중앙초등학교 4학년 1반 주광혁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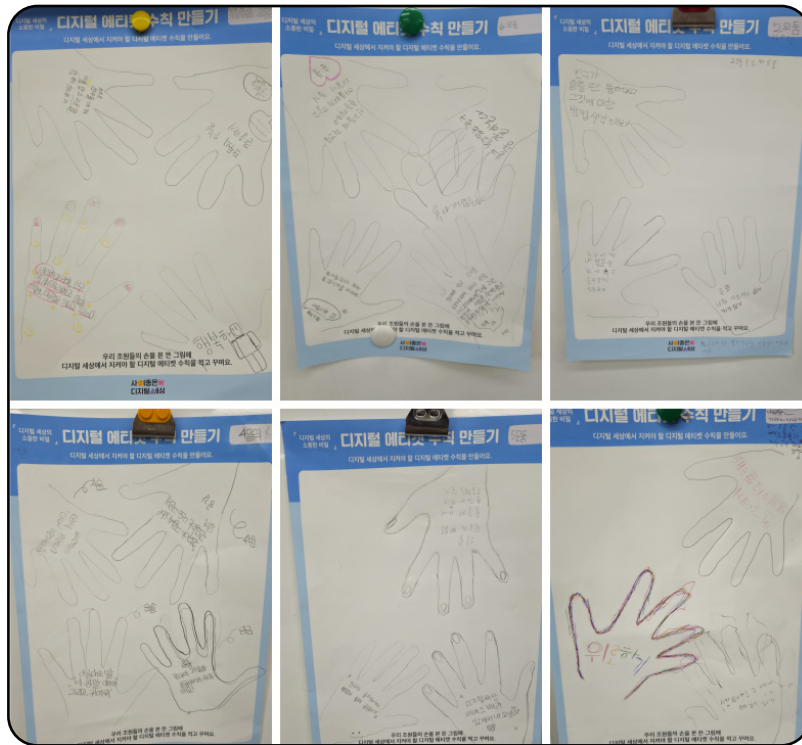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육에 참여한 우리 '사이좋은 알개반' 마침 우리반 슬로건도 '사이좋은'이라서 더 정이 가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교육일이 되자 궁금함을 가득 안고 있던 노란 택배상자가 열리고 우리는 디지털 세상의 소중한 비밀을 배우는 특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은 사이버폭력의 뜻을 알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짚어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민은 어떤 사람일까, 디지털 에티켓이란 무엇일까 풀어나가며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약속과 규칙, 예절'인 디지털 에티켓을 통해 바람직한 가치인 '공감, 존중, 배려, 바른 언어'를 실천하는 디지털 시민의 모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가장 뜨거운 단어인 AI(인공지능)를 강사님이 다루어 주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의미와 순기능, 역기능을 알아보고 인공지능 기술은 똑똑하지만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초점을 두는 윤리적 접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어서 소중한 비밀을 향한 디지털 세상에서 생긴 일 미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던 친구에게 놀림을 당한 친구는 아무런 말 없이 게임을 나가고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가 선택한 입장을 작성해 보고 발표해 보았습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모두 친구들이 손바닥을 모아 디지털 가치를 실현할 디지털 에티켓 수칙을 만들고 다짐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친구 사이에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디지털 에티켓을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행의 끝에는 디지털 시민을 인증받는 인증서와 함께 비밀 상자를 열어 꼬마 디지털 시민을 위한 선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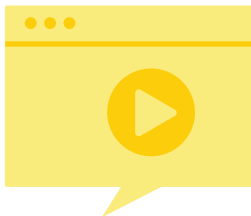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육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넘어,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소중한 비밀을 간직한 채 떠난 이번 디지털 여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알개반은 배운 내용을 실천하며,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카카오와 푸른나무재단에 감사드리며, 모든 친구들이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어디서든 사이좋은 우리 반 친구들

서울 등양초등학교 6학년 1반 김숙현 선생님





6학년 졸업을 앞두고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권을 배부 받으면서 수업이 진행되었어요.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을 여행하기 위한 여권이라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하나하나 여행을 하듯, 그렇게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우리반은 <디지털 세상의 똑똑한 크리에이터>를 주제로 미션을 해결해 나갔는데요, 디지털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내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학습했어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링크 함부로 누르지 않기, 내용 확인 후 회원가입하기, 저작권에 유의하고 허락 받지 않은 사진 등을 올리지 않기 등 이제 유튜브, SNS로 소통하는 친구들이 한번쯤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알찬 내용 등을 배웠답니다.

모두들 진지하게 수업에 참여했어요. 강사님들도 우리반 학습 속도에 맞게 재미있고 친절하게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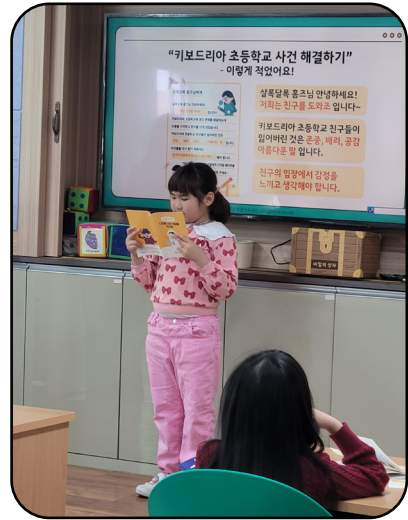
수업을 마치고 드디어 여권에 마지막 도장까지 꾸욱 받았고요, 멋진 우리반 친구들이 디지털 시민증을 받았답니다.

6학년으로서 무엇이든 열심히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등양 6학년 1반 친구들!

디지털 세상에서도, 오프라인 세상에서도 정말 사이 좋은 멋진 친구들입니다.

디지털 여행으로 배우는 사이버폭력과 디지털 에티켓

충남 도하초등학교 1,2,3학년 1반 황찬송 선생님



2025년 4월 18일 1,2교시에 도하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민 첫걸음”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디지털 나라를 여행하고 미션을 수행하면 인증 도장을 받고 비밀의 상자를 열 수 있었습니다. 푸른나무재단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또 다른 아픔을 막고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수업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희망을 가졌습니다.

1교시는 사이버폭력의 종류와 예방수칙을 알아보았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어른에게 알리고 사실을 목격한 경우 **방관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이버폭력 대처방법을 읽으며 어른들에게 알려야 함을 배우고, 와이파이트국의 문제를 살펴보며 함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의 마음을 읽고 나는 어떻게 할지 선택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모두의 마음이 달랐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2교시는 인터네키스탄에서는 디지털 에티켓의 종류를 배우고 샬록달록홈즈 탐정에게 편지를 쓰며 다시 배운 것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시민으로서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약속을 읽고 다짐했습니다.

친절하고 저학년이 알아 듣기 쉽게 천천히, 귀에 쏙 들어오게 정확한 발음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더 집중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비밀의 상자에서 선물까지 주셔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열정적인 강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려요.^^



농촌 소규모 학급에서 더욱 빛난 사디세

경남 대합초등학교 3학년 1반 강지묵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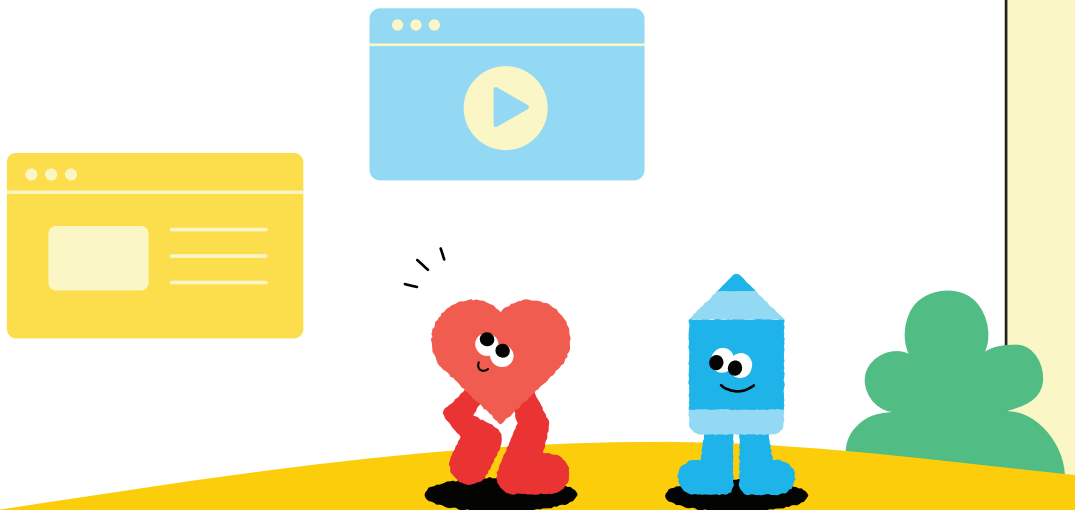
이번 교육은 Born Digital 세대인 청소년들이 AI 시대를 살아가며 반드시 갖추어야 할 디지털 시민의식과 역량을 함양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전문 강사님께서 학교를 직접 방문해 주셔서, 단순한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이고 생생한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교육은 ▲디지털 발자국과 개인정보 보호, ▲가짜 뉴스와 정보 판별 능력, ▲온라인에서의 언어폭력과 디지털 에티켓, ▲AI 시대의 책임 있는 기술 활용 등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다양한 활동과 토론이 병행되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평소 무심코 사용하던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공간 속에서 어떤 책임과 역할을 가져야 하는지를 스스로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실제 생활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강사님께서도 학생들과의 눈높이를 잘 맞추시며, 지루하지 않도록 사례 중심으로 재미있게 강의를 이끌어 주셨고, 학생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해주셔서 신뢰감을 높여주셨습니다. 교육 후 실시한 설문에서도 대부분의 학생이 “디지털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앞으로 온라인에서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답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교육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학교에서 이와 같은 질 높은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귀한 시간을 내어 교육을 진행해주신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세상 우리가 지켜요!

경남 전안초등학교 4학년 1반 조윤정 선생님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육 내용이 매우 유익하고 재미있다는 후기를 듣고 신청했는데 선정되어서 매우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해 '디지털 세상을 여행한다'는 컨셉으로 시작한 점이 좋았습니다. 여권이 있어 교육 활동을 마치면 진짜 도장을 찍어주는 것도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요소가 되었구요.

첫 번째 시간에는 카카 오이슬랜드라는 나라에서 발생한 다양한 범죄 상황을 살펴보고 어떤 디지털 범죄인지를 맞히면 미션에 성공하는 내용이었습니니다. 학생들이 직접 주사위를 던져 함께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는 활동이라 집중이 잘 되었고, 학생들이 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마피아를 디지털 시민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니다.



개인정보란 무엇인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천 수칙이 무엇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 여행으로는 좋아요르웨이라는 나라를 여행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미션 '좋아요르웨이를 지켜라'는 디지털과 관련된 딜레마 상황에서 나의 선택은 무엇인지 입장을 쓰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의 생각이 바뀌었는지 토론해 보는 시간이었는데 학생들이 실제로 겪을만한 구체적인 사례로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이 상황에 몰입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가장 기대했던 '비밀의 상자' 안에는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키팅과 젤리가 있어 학생들이 가장 행복해 한 순간이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을 지키는 활동 내내 선생님의 밝고 친절함 목소리에 학생들이 꼭 빠진 시간이었습니다. 지도 선생님과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좋았구요.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신청해서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디지털 세상을 경험하게 해 주고 싶습니다.

좋은 교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디지털 시민 첫걸음

경기 내리숲초등학교 2학년 1반 류지선 선생님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학교교육 수업에 선정되어 너무 기쁩습니다. 이미 선생님들 사이에서 수업 내용이 좋고 교구나 자료들의 퀄리티가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선정 경쟁률이 너무 치열한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겼네요. ^^ 역시나 왜 인기있는 교육 프로그램인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육 프로그램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몇 가지 적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만한 다양한 교구 사용

퀄리티 높은 다양한 교구 사용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흥미를 유발하여 수업에 집중력을 높였습니다.

디지털 세상(와이파이트국)을 여행하여 미션 해결

2학년 학생들에게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가상의 나라를 여행하며 탐험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해줍니다.



개인활동, 모둠활동, 전체활동의 고른 분배

2차시에 걸쳐 진행되는 수업시간 동안 개인활동, 모둠활동, 전체활동 등 고르게 분배되어 교사의 일방적인 수업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수업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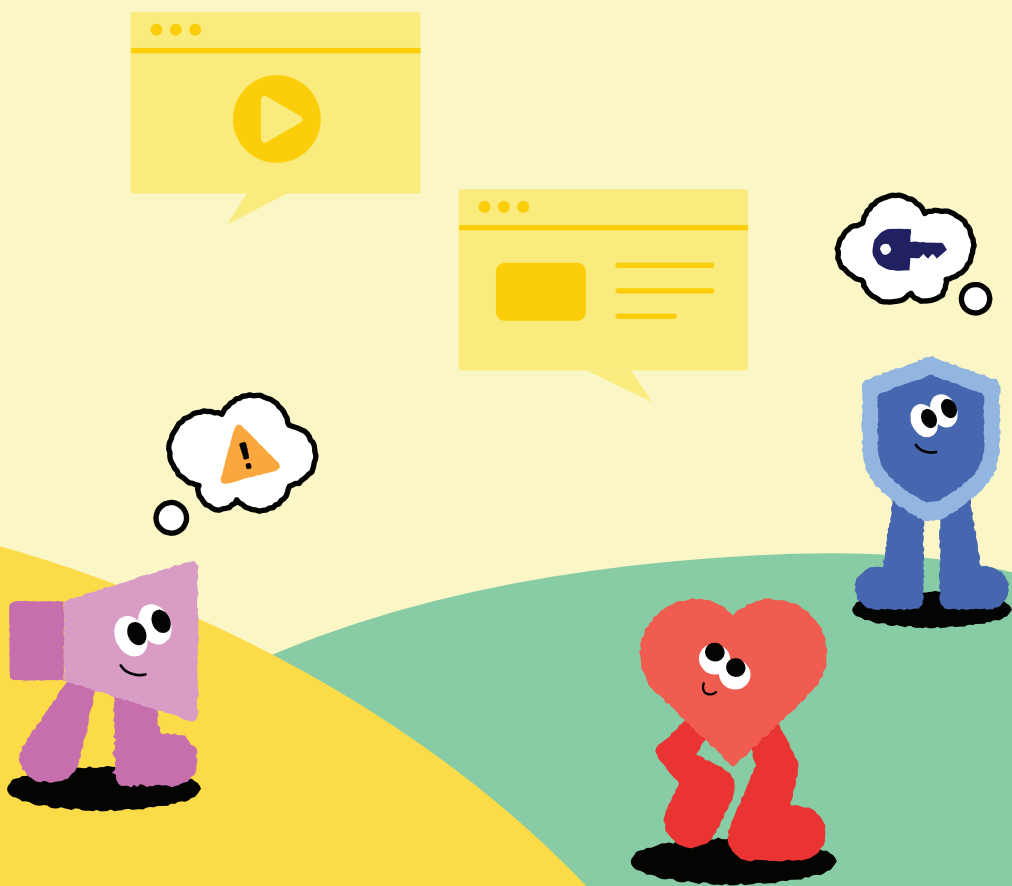
재단 소개

수업 전에, 푸른나무재단이 왜 세워지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시면서 우리가 이 교육을 받는 이유와 목적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셔서 아이들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강사진

개인적으로 학교 외부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아이들과 여러 많은 수업들을 들어본 경험자로서 강사님께서 많은 교육과 연수를 통해 해당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대충 시간 때우기가 아닌 다년간의 노하우로 시간 조절과 수업 진행을 원활하게 이끌어가주셔서 좋았습니다.

오늘 교육을 계기로 아이들이 디지털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 주신 푸른나무재단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에 감사 인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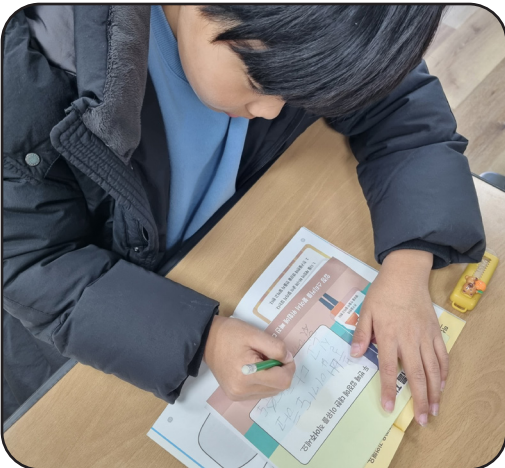
특별사례

**교육 소외지역에
피어난
배움의 즐거움**



'3학년 삼총사'의 당찬 디지털 여행

경북 구룡포초등학교 3학년 1반 권아름 선생님



저희 반은 학생 수가 적어 이번 교육을 3, 4학년 합반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3명의 아이들은 “우리끼리 팀 할래요!”라며 똘똘 뭉쳐 ‘3학년 삼총사’ 팀을 결성했습니다. 평소 학생 수가 적어 늘 가족처럼 지내던 아이들이지만, 이번 수업에서 여권을 손에 쥐고 함께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은 유독 더 끈끈해 보였습니다.

특히 ‘카카 오이슬랜드’에서 디지털 범죄를 일삼는 마피아를 찾아내어, 우리 힘으로 올바른 디지털 시민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을 할 때 아이들의 눈빛이 가장 빛났습니다. 작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 마피아를 착한 시민으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며 진지하게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4학년 형, 누나들보다 조금 느릴 순 있어도, 강사님의 설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스스로 해결해내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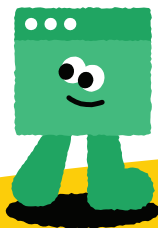
마침내 마피아를 변화시키고 여권을 도장을 받을 때마다 “선생님! 우리가 해냈어요!”라며 환호하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교육 마지막에 비밀의 상자가 열리고 선물을 받았을 때, 아이들은 서로의 키링을 달아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록 인원은 3명뿐인 작은 팀이었지만, ‘우리가 마피아를 디지털 시민으로 바꿨다’는 성취감만큼은 그 누구보다 컸을 것입니다.

교육 소외 지역이라 이런 체험형 교육이 늘 절실했는데, 먼 곳까지 찾아와 우리 ‘3학년 삼총사’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소중한 배움을 선물해주신 푸른나무재단과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이 아이들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자라나는 모습을 꼭 다시 보여주고 싶습니다.

**“합반 수업 속 3명의 삼총사!
마피아를 디지털 시민으로 바꾸며
성취감을 꽃피운 하루”**



올바른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하며

충북 금성초등학교 6학년 1반 황병수 선생님



4월 15일 제천 금성초등학교는 디지털 세상의 소중한 비밀을 찾아가는 학교 교육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소규모 학교이기에 5학년과 6학년 학생 총 10명이 수업에 참여하였고 강사님과의 사전 연락을 통해 학교 학사 일정에 맞추어 교육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학생들은 사이버폭력의 뜻과 사이버폭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이버폭력으로 인해서 누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되며 피해자가 겪을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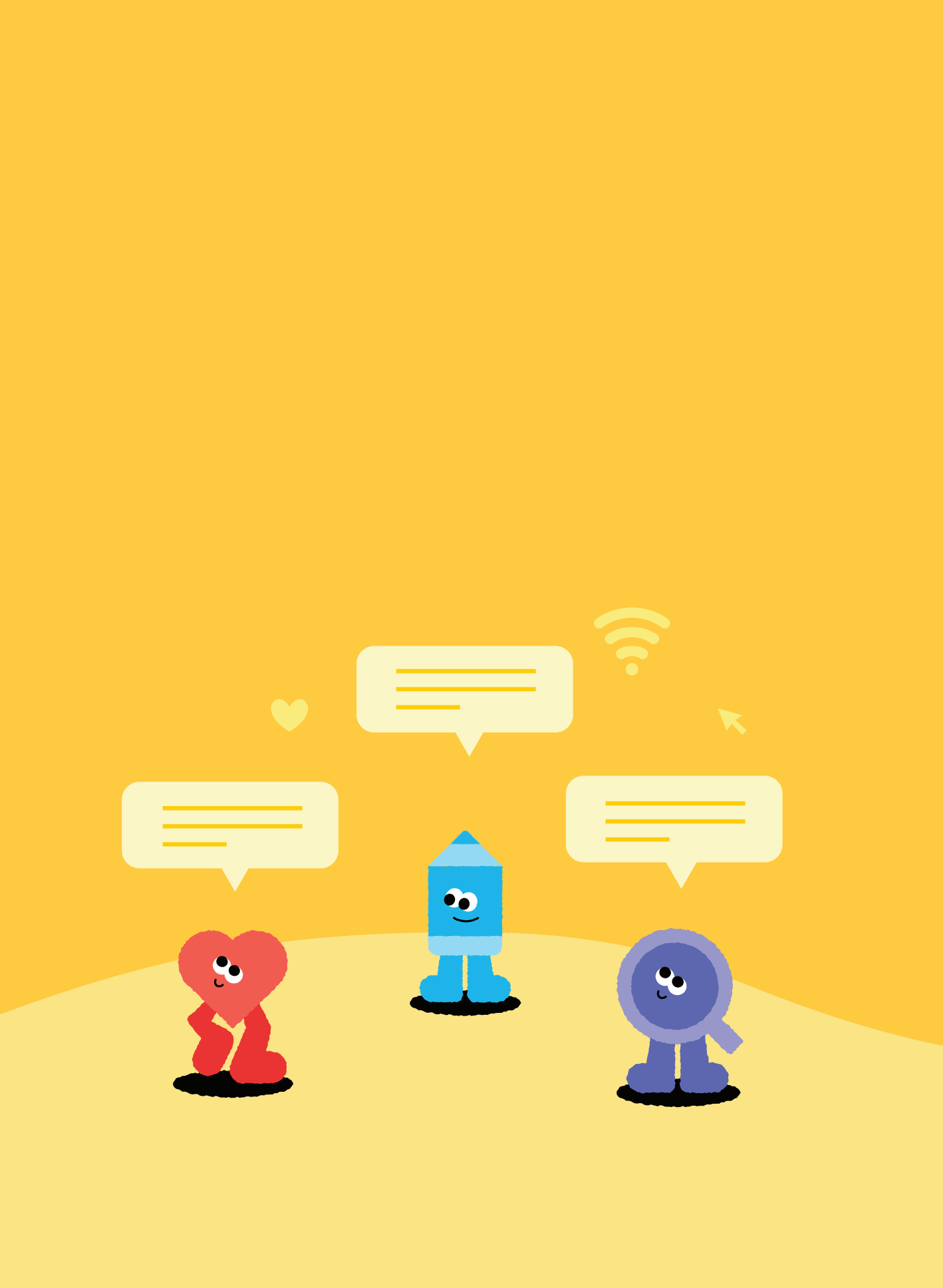
사이버폭력을 방관했을 때 사이버폭력의 발생 빈도는 점점 증가한다는 점을 학습하고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수칙과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해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약속이나 규칙인 디지털 에티켓에 대해 알아보며 아름다운말, 공감, 존중과 배려로 건강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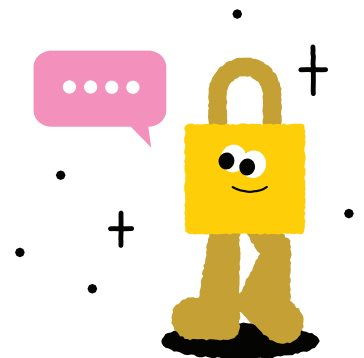
각자 디지털 에티켓 수칙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10명의 학생들이 모여 '금성초 디지털 에티켓 수칙'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약속, 서약서 만들기 활동을 통해 **올바른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하며 수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소규모 학급 10명의 아이들이
다 함께 만든 약속,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을 위한 다짐!”**



3

학생이 전하는 변화의 순간



깊이 있는 이야기



강이진

성서초 6학년



말 한마디의 무게를 깨닫게 해준 수업

오늘 처음으로 디지털 안전 교육이라는 것을 받아보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수업 시작 전에는 흥미가 없었다. 많은 안전 교육을 실천하다보니 전에 배운 것과 같은 것을 배울 줄 알았던걸까.

나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듣다보니 디지털 생활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이 많았다.

나도 저작권,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교육을 받았다. 다른 친구들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정체성, 분별력을 들었을 때 머리가 멍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와 동시에 나는 과연 지금까지 디지털 세상 규칙을 잘 지켜왔을까,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금 다시 생각하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

카톡 프로필에 올려진 누군가의 얼굴. 또는 우리 가족의 개인정보. 우리, 나 또한 수도 없이 실수했으리라 믿는다. 그런 사람들은 어땠을까. 지금은 안 좋은 감정이 씻겨내려갔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한다. 그런데 그 실수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았다면 그 실수는 용서가 될까. 난 이번 디지털 안전 교육을 마치고, 더욱 더 신중하게 디지털 기기를 쓰게 되었다. 이게 누군가의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것을 해도 괜찮을까.

그래서 나는 이번 교육을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다”라고 정리할 것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디지털 시민으로!

오늘 디지털 교육을 받았다. 나는 유튜브를 해서 디지털에 대해 조금은 알았다. 그런데 배운 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새 발의 피라는 것을 깨달았다.

일단은 선생님이 디지털 세상의 역량을 알려주셨다.

첫 째는 분별력이었다. 분별력은 여러가지 기준으로 이것의 다른점을 찾는 것이었다. 나는 분별력이 국어 같은 글에서만 쓰이는 줄 알았는데 디지털에서도 쓰인다는 건 처음 알았다. 그리고 둘 째는 개인정보 보호였다. 이걸 조금은 알고있어서 쉬웠다. 난 종교나 습관 취미도 개인정보라는걸 알아 흥미로웠다. 셋 째는 온라인 정체성이었다. 이것은 인터넷상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인데 나는 인터넷(sns)을 잘하진 않아서 다행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도 저런 친구가 없지만 만일 있다면 정체성의 혼돈이 오지 않게 해야겠다. 넷 째는 저작권이었다. 저작권은 내가 저작권 때문에 많은 역경을 겪었지만 여기서 다시 만나니 은근 반가웠다. 앞으로는 저작권을 더욱 조심하며 써야겠다.

이 네 가지를 다 배우고 난 후는 미션을 했다. 두 가지 미션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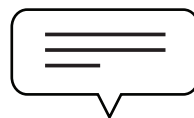
첫 번째 미션은 크리의 잘못이었다. 크리는 사이버 세상의 역량을 지키지 않았다. 이걸 내가 크리에게 말할지 안 할지를 따지는 것이었다. 난 작년에 토론 대회를 나가 토론에는 자신이 있어서 쉽다고 느꼈다. 두 번째 미션은 지금까지 배운 것을 그림 또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다른 애들은 그림 위주로 그렸지만 난 글로만 써서 뿌듯했다.

**난 오늘 사이버에 대해 배워 미래에 대비한 것 같아 안심되었다.
또 앞으로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또 하면 좋겠다.**



조민규

이천매곡초 6학년





한준우

성덕초 1학년



블랙버그를 없애며 알게 된 '마음의 힘'

사이좋은 디지털세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기대되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이모티코니아 '마음 비행기'를 만들었는데요. 얼굴로 표현되는 감정을 알아보고, 감정 이름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이었어요. 나의 감정 중 안 좋은 감정들을 차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면서 스티커에 붙이는 작업이 기억에 남아요.

저도 다양한 감정에 대해 알게되어 새로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블랙버그 없애는 나무 만들기"가 재미있었어요. 직접 고마워, 사랑해 등 착한 마음을 하트에 적은 후 스티커를 떼어 블랙버그가 없어지는 활동을 했는데요. 없어지는 블랙버그를 보면서 앞으로는 좋은 표현, 예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면서 "마음의 힘"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었고, 올바른 표현으로 내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걸 배우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밀의 상자를 열어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속에 키링, 디지털 시민 카드를 받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똑똑한 크리에이터 미션

오늘 5~6교시에 디지털 강사님이 오셔서 디지털 역량 4가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디지털 세상의 문제를 고쳐주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디지털 수업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워크북과 디지털 세상으로 여행을 떠날때 필요한 여권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디지털 역량 4가지인 분별력, 개인정보, 건강한 온라인 정체성, 저작권을 배우며 4가지 사례에 답을 적었습니다. 또 크리의 잘못을 듣고 저희의 의견을 스티커로 붙이고 쓰는 미션을 하고 디지털 세상의 똑똑한 크리에이터가 되어 친구들과 함께 디지털 역량 4가지를 홍보하는 활동도 해보았습니다. 미션을 모두 클리어하고 나서 여권에 도장도 받았습니다. 비밀의 상자를 다같이 열어 포토카드 2개와 이 수업을 듣고 나서야만 받을 수 있는 귀여운 키링, 젤리를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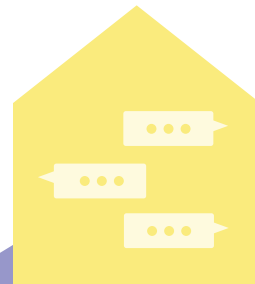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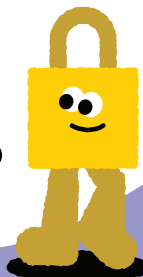
오늘 좋은 수업과 교육을 받아 정말 즐거웠고 특히 친구들과 똑똑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해보는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모둠 활동으로 다시 한번 디지털 역량을 되새길수 있어서 좋았기 때문입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의 포스터도 일러스트 하나하나 정말 예뻐요 강사님이 말씀해주실때도 귀에 쏙쏙 박혀서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만들어주신 저희 담임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저희 반을 가르쳐 주시느라 고생하신 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또 생기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강서원

어람초 5학년





김도연

영주중앙초 4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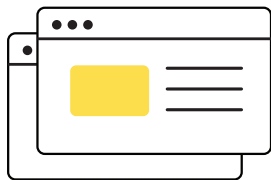
20시간처럼 깊이 남은 2시간의 특별한 수업

처음에는 인터넷 세상이라는 것을 자세히 몰랐지만,
오늘 이 수업을 하고, 인터넷이나 디지털 이런걸 자세히 알게 되었다.
2시간이었지만, 20시간 동안 외운 것처럼 기억에 남았다. 그래서 처음엔 비밀의
상자도 보고 여권도 보고 디지털 세상에 중요한 비밀 워크북도 보았다.

처음 활동은 디지털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솔직히 내가 모르던 걸 잘 알게
되어 좋았다. 그리고 사이버폭력에 무슨 종류가 있는지 배웠다.
사이버 언어 폭력, 그리고 사이버 따돌림 이렇게 많았다.
처음엔 그냥 사이버폭력만 알았는데,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니 영광이었다.

그리고 상황을 보고 스티커 붙이고 이유를 쓰는 활동을 했는데 나는 둘 다 2를
골랐었다. **그때는 활동을 즐겁게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일종의
공부였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에 도장 2개를 받고 나서, 비밀의 상자를 열었다 난 처음엔 우리 반에게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선물을 포토카드 2장, 키링, 하리보를 받아서 기분이 좋았다.
난 선생님과 함께하는 것도 행복하고 즐거웠지만, 이렇게 재밌게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었다. **다음에도 이렇게 재미있는 디지털 세상을 공부하면 좋겠다.**



생생한 이야기



윤채원

이천송정초 6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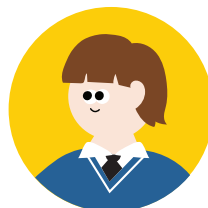
기대 이상의 재밌었던 수업!

5/13일에 첫 수업을 했는데 사실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수업을 들었는데! 선생님이 완전 생각보다 수업을 너무 집중할 수 있게, 목소리도 크셔서 뒤에까지도 잘 들리고! 열정적이게 설명을 잘 해주세요!! 제가 원래 이해가 잘 안되는 타입인데 이해가 잘 돼서 뭔가 기본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재밌는 수업이 됐고요! 저작권 침해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해야 저작권 침해인지, 초상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허락없이 올리면 그게 초상권 침해란 걸 자세하게 알았구!! 제 기준에는 재미없던 자료는 안 넣으셔서 재밌는 수업이 됐던 거 같아요!!! 다음에 또 하면 진짜 완전 잘 참여할 자신 있어요!! 마지막에 선생님 가실때 선물도 주고 가져서 완전 맘에 들고 심쿵 했어용 ㅎㅎ 2시간 동안이었지만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



광운초에서 매년하고 있는 디지털 시민 교육 너무 재미있었는데 이번에 카카오랑 콜라보해서 너무 귀여워서 너무 좋았어요.

디지털 세상에서 카카 오이슬랜드와 종ாய르웨이를 통해 온라인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와 저작권을 배워서 앞으로 온라인 세상에서 더 잘 행동할 것 같아요.



전정아

광운초 4학년



권윤아

마지초 6학년



지루한 교육을 성취감 넘치는 퀘스트로!

늘 같은 수업을 듣는것이 지루하였지만 이번은 달랐다. 비밀의 상자를 열기 위해 정해진 퀘스트를 깨며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끼게도 해준것 같다. 또한 **다양한 상황을 통해 문제점과 해결법을 찾는 활동이 좋았다.**

마지막에 인스타그램 게시물 꾸미기 활동을 하며 수업 진행동안 느낀 점을 글이나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기에 좋은 활동이라 생각한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인스타그램 게시물 꾸미기 활동의 시간이 짧았다는 것이다.

4교시여서 더욱 그랬던 것 같다. 선생님도 학생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시는 것도, 다양한 활동도 만족한 수업이었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수업을 추천하고 싶다.**



사이버폭력 예방에 대해 배웠다.

사이버폭력은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모든 행동을 말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해요.

사이버폭력을 당하면 하지말라는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주위 어른에게 도와달라고 해야해요.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고 친구들을 배려하고 존중해야하는걸 깨달았어요.



이하은

보름초 2학년



홍수민

탕정초 6학년

디지털 세상이라는 세상을 만들어서 여행을 하며 미션을 해서 여권에 도장을 찍는 것이 인상깊었고 디지털 폭력 등(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언어(?)를 배워서 다른 데 쓸 수 있어 좋았고 저는 이 언어를 다시 한번 배우고 이 언어를 모르는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네요. 강사 선생님도 친절하신 것 같았어요. 다른 건 다 재미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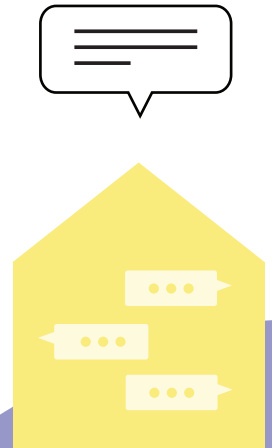
댓글은 신중하게,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오늘 학교에서 '디지털 시민의 특별한 비밀'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랐는데, 수업을 듣고 나서 인터넷을 쓸 때 조심해야 할 것들을 배웠어요. 디지털이라는 건 TV, 핸드폰 등이 있다고 자세히 알려주셨고 인터넷에서는 나쁜 말을 쓰면 다른 사람 기분 나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 이름이나 집 주소 같은 개인정보는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된대요. 아는 사람이 주소를 물어볼 때에도 말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항상 댓글을 올릴 때에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채희

인천원동초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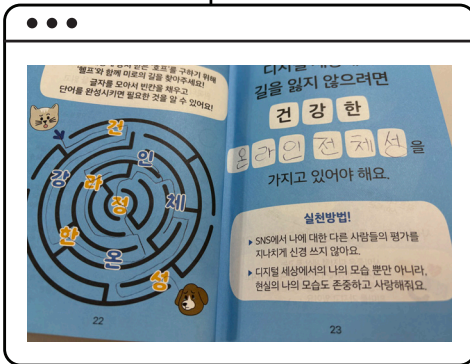
김민서

아미초 6학년



진짜 여행처럼 신나게 지식까지 쌓은 1석 2조 수업

오늘 여행을 떠나는 배경인 것을 생생히 느끼게 하기 위한 여권, 영상, 가이드님과 소품준비 등의 디테일로 정말 여행을 간 기분이 드는데 디지털 세상 교육까지.. 완존 1석 2조네요....!! 그리고 비밀의 상자를 열기 위해 노력한 우리반 친구들과 나자신! 정말 뿌듯하고 배우기 잘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여행의 즐거움, 신남만 준게 아니라 교육으로 지식도 쌓아주다니 정말 재미있고 감사했어요!** 다음에도 와서 가르쳐주시는 기회가 또 있길 기대하며 워크북과 여권에 있는 게임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커서도 안전하게 디지털 세상을 쓰도록 할게요.....!!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친구들의 별명을 부르며 놀리지 않아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말, 공감, 배려, 존중을 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를 놀리지 않고 지금보다 더 예쁜 말을 쓰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양보를 하면서 같이 사이좋게 잘 놀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친구들 별명을 저장해 놓지 않겠습니다.



박도윤

중문초 2학년



이시우

반야월초 4학년

안녕하세요.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게 된 이시우 학생입니다!
 오늘 수업 너무 즐거웠어요. 여권도 있어서 직접 체험하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보드게임이 제 기억에 남았어요.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싶은 수업이었습니다!!
 수업 들려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고, 재밌었습니다.
 수업에서 카카 오이슬랜드와 종아르웨이를 체험했는데, 물론 두 나라 모두 재밌게
 체험하였지만, 더 재밌는 나라를 선택해보자면 카카 오이슬랜드에 더 끌렸어요.
 다시 한 번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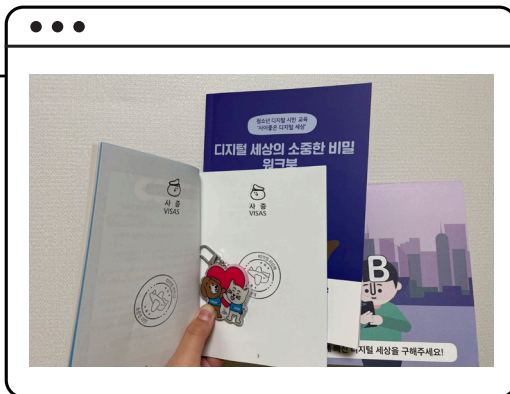
잊지 못할 특별한 디지털 여행

디지털 여행 가이드 선생님께서 푸른나무재단에 대해 알려 주셔서 가해자,
 피해자를 모두 돕는 아름다운 재단, 푸른나무재단에 대해 알게 되었다.
 또한, 미션이었던 디지털 세상 기자의 비밀과 디지털 에티켓 수칙 만들기를 통해
 사이버, 디지털에 대해 너~무 잘 알게 되었다. 이번 주제가 디지털 세상으로의
 여행이었는데, 수업과 미션이 너무 재미있어서 진짜 여행을 떠난 것 같았다.
 헬프와 호프 킬링도 비밀의 상자 선물로 받았는데, 너무 귀여웠다. 이번
 푸른나무재단의 사이버 교육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잊지 못할 것 같다.



이하나

인천정각초 5학년





정재은

복산초 6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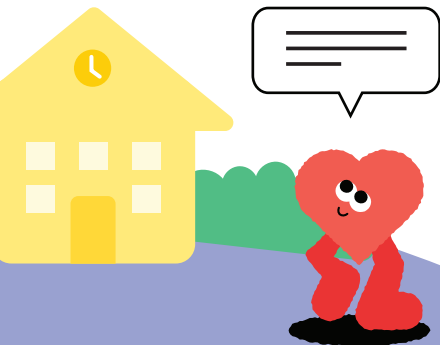
스마트폰 인터넷 자유롭게 사용하고 아무 생각없이 보고 검색했던 디지털이라는 세상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을 실제로 보고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디지털을 사용할 때도 서로 간의 존중을 생각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되었다. **앞으로도 디지털은 많은 부분을 우리와 함께 할 것인데 학교에서도 많이 많이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5학년이 되고 나서 비속어나 줄임말, 욕설 등을 사용했던 저에 대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비난이나 비하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 할 친구들을 생각하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보다 내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손내밀어 주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꿈이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봉사하고 배려했을때 받는 따뜻한 온기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나부터 실천한다는 생각으로 다짐하며 달라지고 싶습니다.



남혜인

조봉초 5학년





지윤재

서울방배초 5학년



친구를 돕는 용기를 배웠어요

선생님께서 매우 재미있게 강의를 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수업때는 내가 몰랐던 학교폭력의 종류들을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꼭 도와주고 학교폭력을 물론 당연히 행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프로그램 내용 전체가 재미있어서 매우 인상 깊었던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다면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밀의 상자를 열었을 때는 예쁘고 좋은 상품들이 많아서 매우 기분이 좋고 강의를 열심히 들은 것에 대해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예절 교육을 '디지털 나라 여행'이라는 놀이 형식으로 배운 것이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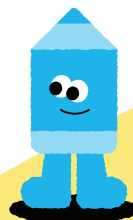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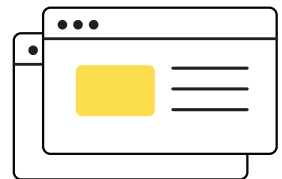
(학급)모둠 친구들과 다 같이 인스타그램 모양의 정리 프로그램이 제일 재미있었다. 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해 한 부분을 작성했는데, 간단하면서도 결과물이 예쁘게 나온 점에서 뿌듯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형식의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



하정음

고운초 6학년





이주명

동막초 4학년

평소 디지털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디지털 예의나 이런 것들을 배우니 나도 지켜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재미있으면서도 성실함을 알게 되는 수업이었다. 자주 이런 수업에 필수적으로 참여하면서 나는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려고 한다. 친구들과 이런 수업을 통해 지력을 쌓아가는건 어떨까? 오로지 학용품 세트 때문에 후기를 남기는 것이 아니다. 정말 내 인상에 남아서 쓴 것이다.

이번 교육으로 디지털이란 양면의 얼굴이라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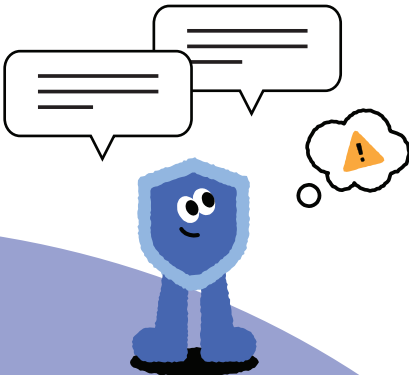
한 면은 흥기로 쓰이지만 한 면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인 칼처럼 한 면은 좋아 보이지만 실체는 아닌 것 같다. 앞으로 신상을 어느 정도만 밝혀야겠다. 만약에 힘들때 1588-9128(구원의 팔)로 전화해야겠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필수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렇게 콘텐츠를 진행하면 좋겠다.



김해루

신월초 6학년





김하늘

인천창신초 5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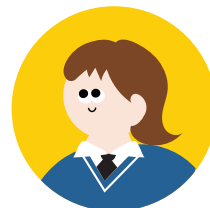
알록달록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는 디지털 시민으로

오늘 수업을 통해 디지털 세상에 대하여 배웠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따돌림, 개인정보 유출 등 디지털 세상의 또 다른 면을 알게되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다양한 일이 있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공감이다. 공감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디지털 세상도 존재할 수 없다. **디지털 세상은 사람들이 공감이라는 주제로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짐으로써 존중이라는 것이 생겨난게 아닐까? 마치 알록달록 색깔처럼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진다는게 너무나 신기하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디지털 세상에 한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다.** 앞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존중하고 공감해주며 행복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디지털 세상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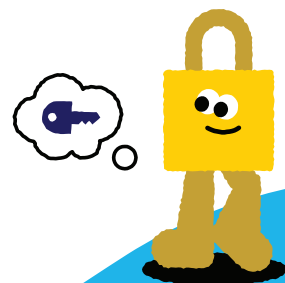
특히 개인정보 침해, 인권침해, 유해매체 및 유포라는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는데 **게임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가 금방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보민

해운대초 4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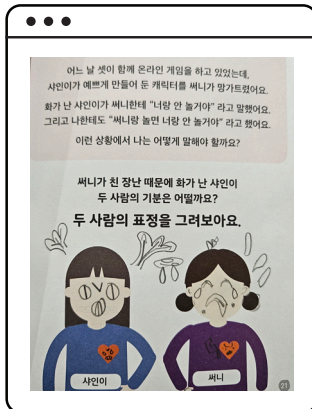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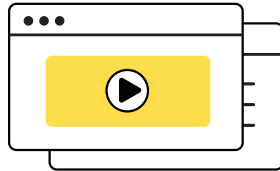




김리우

은빛초 4학년

‘디지털 세상을 지켜라’라는 프로그램이 너무나 흥미롭고 재미있고 나의 디지털 사용 방법이나 내가 디지털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되어 재미있었고, 나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캐릭터의 이름이 너무 웃기고 재미있어서 좋았다. 예를 들어 마피아 ‘돈내기리리리 돈내꺼만’이라는 이름의 마피아의 이름이 너무 재미있었다.



이모티코니아 모니터의 굳어버린 마음을 녹여줄 여러가지 다양함 감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소에 알고 있던 감정들도 있었지만 새롭게 알게된 감정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나의 불편한 감정들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제일 기억납니다. 알록달록한 내 마음의 소리를 알아보고 특히 만족하다, 용기나다, 재미있다 같은 감정들을 느끼며 명선초등학교를 열심히 다닐 것입니다.



김나은

인천명선초 1학년



이은정

산동초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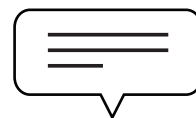
오늘 내가 배웠던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앞에 나와서 발표할 때랑 교육할 때 친구 얼굴 그리기가 재미있었다. 그리고 모둠
활동하는 것도 엄청 좋았다. 그렇지만 1,2교시만 하는 게 너무 아쉬웠다. 그래도
오늘 하루는 즐거운 시간 이었다. **오늘 수업중에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친구 얼굴 그리기 수업이 가장 좋은
수업이었던 것 같다. **다음에 이 수업이 또 있었으면 정말 즐거울 것 같다.**

디지털 교육하면 어렵다고 느꼈는데 이번에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육은 여권도
만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춘식이 그려진 워크북도 받아서 행복했어요!
미션 수행 후 비밀의 상자에 들어있는 선물들도 받아서 뿌듯했어요!
비대면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대면 수업처럼 활기차게 친절하게 수업해주신 정재은
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육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지내야하는지 잘
알게 됐어요! 다음에도 해보고 싶어요!



강혜주

대구비슬초 6학년





이서울

서울한남초 5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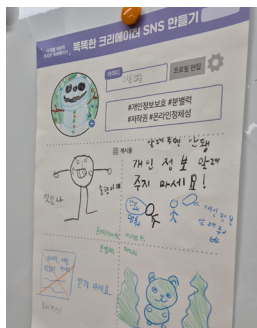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을 배우고 나서 온라인 세상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세상에서도 상대를 존중, 배려, 공감하며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답페이크 영상이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면 바로 사과하고 영상을 내려야 합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을 배움으로 앞으로 디지털 세상 속에서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하겠습니다!

솔직히 학교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재미난 수업을 하니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디지털 교육, 예절, 약속이 정말 유익했습니다. 특히 「똑똑한 크리에이터 SNS 만들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뭔가 친구들이랑 더 사이가 좋아진 느낌도 있고, 디지털 세상이란 세계관이 생겨서 좀 더 집중해서 수업할 수 있었고 가이드 선생님이 친절하시고 정말 잘 가르쳐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학교에서 한다면 아는척 좀 할 거예요.



조유정

의성남부초 6학년





이시영

전주조촌초 6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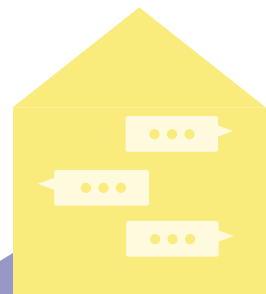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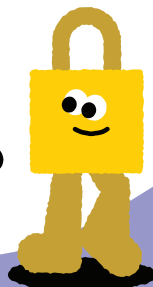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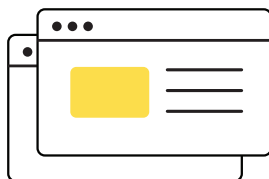
나오는 영상이랑 그림, 학습지까지 귀엽고 선생님도 친절해서 너무 좋아요!!
 다음에 다른 내용의 수업도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처음 오셨을때 어색해서
 저희 반 애들이 대답도 잘 안하고 했는데 분위기 풀어 주시면서 유쾌하게
 이야기하시는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끝나고 맛있는 간식이랑 키팅까지 또 상장도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내용 이해도 잘 되고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하고 재밌었습니다.

나라별 이름에 우리가 아는 '카카오', '종아요' 등이 있어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다른 나라 이름도 궁금하고 다른 나라에 문제점을 알고 구하고 싶어요. 보드게임도
 재밌어서 또 하고 싶어요.
 수업도 어렵지 않고 쉽고 재미있었어요.
 디지털 수업을 해서 디지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앞으로 디지털 기기를 쓸
 때 조심해서 써야 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아라

원신흥초등학교복용분교장
4학년





김찬유

은빛초 4학년

디지털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편리함을 주지만, 무분별한 사용은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되고 남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나의 디지털 활동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결국 여러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수있어요. **디지털 세상은 빠르고 편리하지만, 아날로그 세상보다 더욱 신중하고 깊은 주의가 필요해요.**



괴롭힘 바이러스는 NO! 예쁜 말로 지키는 디지털 세상

동국초등학교를 다니고있는 2학년 2반 전하울입니다. 와이파이트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사이좋은 나라였는데, 괴롭힘 바이러스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내용이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사이버공간 핸드폰 안에서 예쁜 말을 사용하지 않고 나쁘게 말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쁜 말인걸 알면서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친구들 사이에서도 선을 지켜야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재미있다고, 장난을 쳤는데 친구들이 싫어하거나 하면 그건 장난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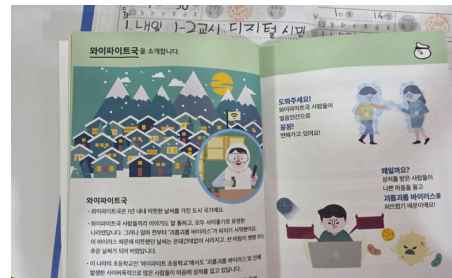
나만 즐겁고 친구는 속상해하면 그건 나쁜 행동입니다!!

앞으로는 바른 말을 사용하고 친구들끼리도 예쁜 말만 할 것 입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감정들을 보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잘 알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됩니다!!



전하울

동국초 2학년





고예진

고봉초 6학년

선생님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좋았고 그래서 그런지 이해도 잘된 것 같다. 모르는 것도 배우고 덕분에 개인정보 지키는 방법도 알았고 재미있었다. 그리고 설명을 잘해주셔서 너무 좋았다. 미션 같은 것도 했는데 재미있었다. 친구들이랑 같이 모둠을 만들어서 프로필을 그리기도 하고 글을 써서 붙였다. 친구들이랑 해서 더 재미있던 것 같다. 다음에 또 활동하고 싶은 활동이었다.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친절하셔서 수업이 집중도 잘 되고 재미있었고, 수업을 하면서 몰랐던 점도 알았고 알긴하지만 정확하게 몰랐던 점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신 교재 너무 잘되어있고 재미있는 내용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여권도 고퀄리티라서 놀랐어요.

푸른나무재단! 앞으로도 사용할 일이 있으면 사용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이유정

고봉초 6학년



황보건

서울신서초 5학년



미션을 해결하며 비밀의 상자를 열던 두근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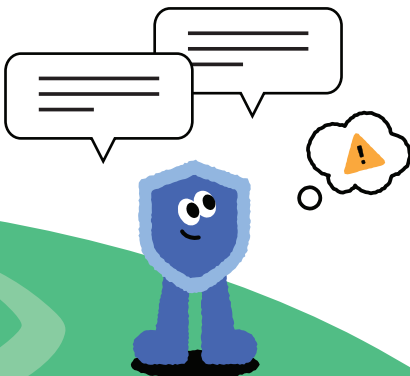
디지털이나 인터넷은 다 평화롭고 재밌는 하나의 프로그램인 줄만 알았지만,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안 좋은 점들과 이를 예방하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의 프로그램은 각각 미션을 완료하며 디지털 마을을 지키고, 마지막에는 비밀의 상자까지 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수업에 집중하며, 마지막까지 노력하며 비밀의 상자까지 열었습니다. **그동안 듣기만 하고 제대로 실행 해본 적이 없던 인터넷 교육과는 달리 이 수업은 저희를 재밌고, 신나고, 기대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있다면 다시 만나 재밌는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이라는 제목만 봤을 때는 또 뭐 편집하나? 했는데 완전 다른 활동이어서 좋았어요! 분별력, 개인정보, 온라인 정체성, 저작권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수업으로 인터넷을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미션을 수행해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더 열심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황연재

고봉초 6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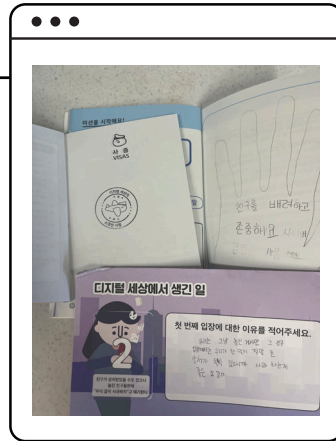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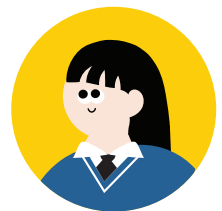
이해섬

이서초 5학년

처음 디지털 세상을 이용할 때는 하면 되겠지 하고 디지털 세상에 발을 들이게 되었는데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교육을 받아보니 디지털 세상의 예절, 에티켓, 디지털 세상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됐을 때 대처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게 되어서 디지털 세상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저도 약관들을 다 읽지 않고 넘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업을 듣고 약관을 꼬~옥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디지털 정체성을 배우고 인터넷 세상의 저와 현실세계에 있는 저를 동등하게 사랑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귀☆염☆뽀☆짝☆한 춘식이 여권과 책,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비밀의 상자에서 나왔던 미니 하리보와 춘식이 키링, 디지털 시민 인증서예용!!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꼭꼭 하고 싶어용^^*



안호은

전주조촌초 6학년



박하윤

고봉초 6학년

오늘 디지털 선생님이 오셔서 친구들과 함께 교육을 들었는데 너무 집중이 잘되었고, 처음부터 재밌는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권도 너무 디테일해서 신기했고, 오늘 하루 정말 즐거웠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인스타 게시물도 직접 그려서 게임도 하고 도장도 받고 재밌었어요. 마지막에 선생님의 정성이 담긴 선물도 받으니까 기뻐요. 다음에도 또 교육을 듣고싶어요! 꼭 와주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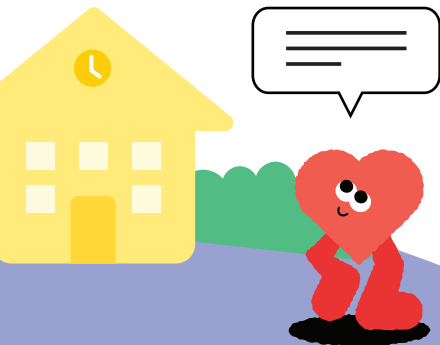
'여행' 컨셉으로 지루할 틈 없이 빠져든 교육

교육을 받고 나니 재밌고 사이버세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친절하셨고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좋았어요.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수업이 한층 더 재밌어졌어요. 게다가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수업을 해서 지루하지 않았어요. 3학년 때도 푸른나무재단에서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재밌게 수업을 받았는데 5학년 때도 받으니까 좋았어요. 이렇게 알차게 수업할 수 있어서 신났어요. 6학년 때도 수업 또 받아 보고 싶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잘 하게 될 것 같아요. 푸른나무재단 화이팅!!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많이 많이 도와줘서 학교폭력이 줄어들게 해주세요. 저도 실천 한걸음을 걸을게요. 수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승민

서울방배초 5학년



변화의 한마디

박시울

솔밭초 6학년

디지털 세상이 무서운 것만 알았는데 내가 잘하면 좋은 것을 알았고, 디지털을 좋게 잘 사용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공감나무열매 공부 시간이 재미있었어요.

미션을 통과해서 킴이랑 하리보 카드 이렇게 받았는데 집에서 아빠에게 자랑하며 말해줬어요.

이서아

성덕초 1학년

박태산

대전원신흥북용분교장
4학년

사이버 속에서도 폭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이 놀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더 예의를 지켜야겠다.

디지털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몰랐고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나부터 더 노력해야겠다.**

마현우

조봉초 5학년

양성우

정밭초 2학년

사이버폭력 백신 주사를 만들 때 미션을 다 수행해서 뿌듯하고, 재미있었다. 그리고 수업을 통해 사이버폭력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앞으로도 사이버폭력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사이버폭력을 하지 않아서 행복해지면 좋겠다.**

방소민

두정초 3학년

다양한 질문을 해주셔서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체험 활동도 있어 더 지루하지않고 재미있었어요.

디지털 세계에서 먹방꿈나무와 장난이니까가 싸웠는데, 내가 장난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사이버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송창현

인천선학초 2학년

박나은

대덕초 2학년

앞으로는 사이버폭력을 하지않고 친구를 따돌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다짐했다.

오늘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에서 친구들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고 나쁜 말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최지원

대덕초 2학년

이주호

대덕초 2학년

오늘 수업이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80분 동안 사이버폭력 등 제가 배워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수업 해주신 선생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사이버폭력을 하지 않고 만약에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있으면 도와줄 것입니다.

김지민

대전신계초 4학년

디지털 교육하니까 디지털 세상에 대해서 많은것들을 배워서 좋고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디지털 세상에서도 모두 바른말을 사용하여 디지털 폭력을 예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수업을 들었어요. 친구와 사이좋게 인터넷을 쓰는 방법을 배웠어요. 욕하거나 놀리는 말은 친구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부터는 좋은 말만 하고, 친구를 도와주는 디지털 시민이 될 거예요!**

민시아

서경초 1학년

박예준

사창초 2학년

오늘 사이버폭력에 대해 들었는데 재미있었습니다. 듣고나니 앞으로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고운 말을 쓰는 습관을 가져야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재밌었고 언어폭력이 뭔지 사이버폭력이나 인터넷에서 욕설과 내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왜 안되는지 알게 되었다.

최시안

서울천왕초 1학년

유현서

고봉초 6학년

오늘 하루 동안 배운 디지털 교육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배운 내용으로 디지털을 건강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저한테 많은 도움주신 푸른나무재단 감사합니다.

조우연

고봉초 6학년

재밌었습니다! 선생님도 친절하셨고 수업 내용도 인상깊어서 네 가지 역량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푸른나무재단 한 번 찾아봐야겠어요. 좋은 경험 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많이하던 앱 설치 방법이 잘못된 것을 오늘 배워서 이제 안 할 마음이 많이 생겼다. 오늘 수업은 활동이 많아서 재밌었다.

권도연

고봉초 6학년

정혜인

해동초 3학년

이제 사이버폭력이 뭔지 알았으니까 친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않겠습니다. 오늘 수업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교육 중, '사이버폭력'의 피해자가 된다면 거부의를 보여주고 신고해야 한다는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이 잘 지도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김로이

군포화산초 3학년

신지훈

은빛초 4학년

디지털 교육을 받으니 디지털은 좋은 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안 좋은 점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자신의 정보가 도용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죠. 앞으로 디지털 사회 잘 지켜 나갈게요! 파이팅!

최다윤

판교대장초 3학년

저는 사이버폭력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와 직접 다투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사이버상에서 친구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하고,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등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겠다고 선생님, 친구들과 다짐했습니다.

디지털 세상 교육을 하니깐 디지털이 무엇인지 알게되어서 기쁘고 사이버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보면 모르는 척 하지않고 당당하게 “하지만 친구가 싫어하잖아 그런 행동은 하지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거다.

최수진

청량초 3학년

나하윤

인천선학초 2학년

너무 너무 재미있었어요. 디지털 세상에서 고운 말을 안 쓰면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저도 고운 말을 많이 해야겠어요.

이 교육을 해보니 사이버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큰 상처를 얻는다는걸 알게되었고, 당하는 사람을 보면 가만히 서서 보고있는 방관자 말고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방어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정하늘

고잔초 5학년

박예담

인천조동초 4학년

제가 디지털 교육을 받고 엄청 좋아졌어요. 다음에도 디지털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실제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착하게 살고 잘못 했으면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ㅎㅎ 감사합니다^^

유시우

천안삼거리초 1학년

교육 중간중간에 미션들이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가지 다양한 감정들 이모티콘들이 너무 귀여워서 집에서 다시 보면서 그림도 따라 그려봤어요. 다시 또 이 수업이 듣고 싶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에게 너무 쉽게 다가온 디지털 세상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배려있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춘식이 키링이 너무 귀여워서 가방에 달았는데 키링을 볼 때마다 핸드폰할 때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잘 구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서

인천가현초 2학년

임혜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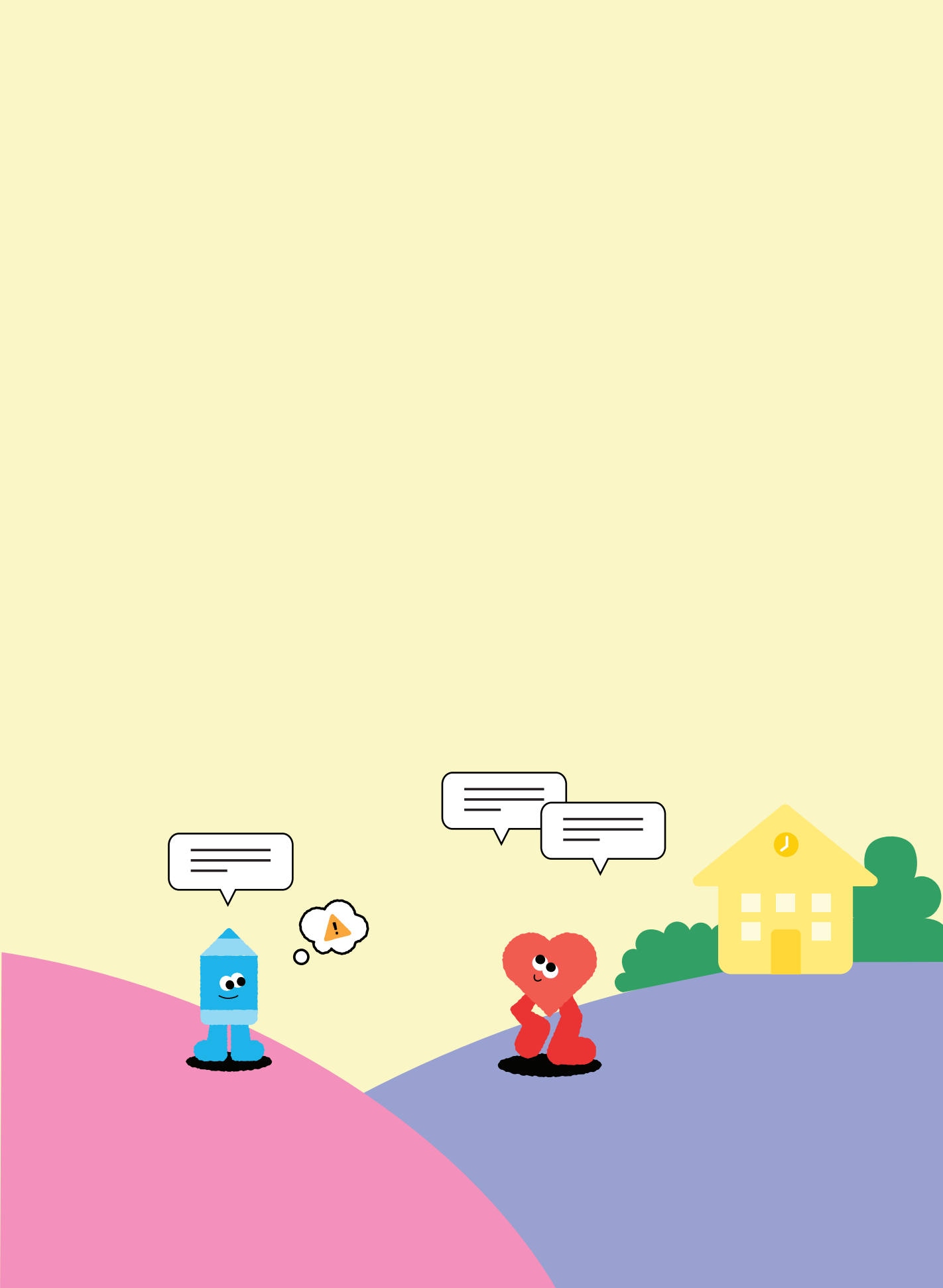
솔밭초 6학년

선생님이 너무 착하고 수업을 잘해줘서 좋았던 수업이에요. 비밀의 상자에 있는 선물도 좋았어요. **중학교 가서도 다시하고 싶은 수업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수업을 많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으로 비밀상자에 있던 선물 올려보아요♡

교육이 너무 재미있었고 올바른 디지털 시민으로 한발짝 가까워진 것 같아서 기분도 좋았어요. 그리고 여권 디테일도 대박이었어요. (춘식이기도 있어요) 비밀의 상자에 선물도 디테일 짱! 다음 번에도 재미있는 디지털 교육으로 찾아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교육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박서인

항동숲내초 3학년



디지털 세상으로 떠난 특별한 여행

2025년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우수후기 자료집

발행인 이종익(BTF푸른나무재단 대표)
편집장 최선희(BTF푸른나무재단 본부장)
편집인 조성훈(BTF푸른나무재단 인성미래센터 센터장)
서지현(BTF푸른나무재단 인성미래센터 과장)
문승찬(BTF푸른나무재단 인성미래센터 팀장)
김태희(BTF푸른나무재단 인성미래센터 주임)
윤혜진(BTF푸른나무재단 인성미래센터 담당)
임지수(BTF푸른나무재단 인성미래센터 담당)

디자인 U DESIGN STUDIO

발행처 BTF푸른나무재단

발행일 2026년 8월

문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88(청예단빌딩)

TEL. 02-585-0098(대표)

E.mail. digital7942@btf.or.kr

www.btf.or.kr (BTF푸른나무재단)

*본 자료집은 BTF푸른나무재단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이 작성한 후기를 바탕으로 제작한 저작물입니다. 재단의 승인 없는 상업적 이용,
무단 변형 및 출처 없는 불법 도용은 금지합니다.

Copyright 2026. BTF푸른나무재단. All rights reserved.



kakao kakao!impact

 BTF 푸른나무재단